

BLIZZARD ENTERTAINMENT

# 마지막 카드

---

로버트 아제

네리사 나톨리는 비에 젖은 서부원정지 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가랑비 때문에, 가로등이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섬뜩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그녀의 근심은 최근 시내에서 목격된 괴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때아닌 추운 날씨 때문이었다. 안개가 짙어져 비가 되었으나, 길이 미끄러워지고 위험해지자 비는 바로 그쳤다. 두터운 양모 망토가 체온을 유지해주었지만, 비를 맞으며 걷는다는 수모는 그녀에게 슝스슝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바로 일 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하인에 둘러싸여 마차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갔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빗쟁이들이 남편 이름이 적힌 차용증과 청구서를 들고 문간에 들이닥치기 시작하기 전이었다. 애시턴은 마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녀는 되뇌었다. 그러나 도박과 술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파멸시킨 바 있고, 지금 애시턴은 가문의 마지막 남은 보물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 나약함을 들어 그를 비난할 생각은 없었지만, 얼음장 같은 물웅덩이에 발을 디딘 순간만큼은 비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목과 우아한 저택이 늘어선 주택가를 따라 걸으며, 바로 그 거리에서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참석했던 가장무도회들을 떠올렸다. 물론 새 야회복을 살 돈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때 마차의 창문으로 바라본 거리는 장엄해 보였다. 그러나 야회복이 사라지고 마차도 사라진 지금은, 뒤틀린 가지를 안개 속으로 뺀고 있는 나무들이 검고 불길해 보일 뿐이었다.

마필만큼은 최대한 오래 팔지 않고 버텼다. 말이야말로 가문의 지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식이었고, 그마저 팔고 나니 자산가의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었다. 비에 젖은 거리를 평민처럼 걸으며, 그녀는 낮은 소리로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는 애시던이 재산을 고스란히 지닌 채 나약함을 극복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했다. 공상에 잠기는 부류는 아니었지만, 달리 위안을 삼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방법을 찾겠노라 다짐했다. 동생이 가난한 노처녀로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결의를 다지기엔 충분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법을 찾고 말리라.

옆길로 들어서자, 그녀의 목적지가 황량한 바위 절벽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실상은 천박하다면 천박하지만 부유한 상인이자 돈놀이꾼인 빈센트 다스틴이라는 자의 비교적 소박한 주택일 뿐이었으나,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완고하고 험악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대문을 불안한 듯 쳐다보았다. 일 년 전이었다면 마차에서 케지스탄산 고급 포도주를 훌쩍이면서 종을 보내 전갈을 전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 남자의 인내를 청하는, 아니 구걸하는 수모를 두려워하며 대문으로 향하는 긴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네리사는 입구에 도달해서는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의지를 한껏 끌어올려 차가운 금속을 잡고 참나무 문을 두드리자, 기름칠이 잘 된 경첩에 달린 문이 거의 즉시 활짝 열렸다.

“예?” 문을 연 포동포동한 하인이 말했다. 네리사는 그의 치켜 올라간 눈썹이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화를 억눌렀다. 그녀는 구걸을 해서라도 집을 되찾으려고 온 것이고, 그 필사적인 심정이 하인들에게도 뻔히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애시턴이 가문의 저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을 때는,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느낌이었다. 네리사는 그때까지 남에게 빚을 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변제할 수 없는 채무, 이행할 수 없는 의무가 얼마나 역겹도록 불안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집을 잃는 것은 곧 보금자리를, 서부원정지 사교계로 돌아갈 마지막 희망을 잃는 것이다. 언젠가 애시턴이 판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희망을,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신랑감을 찾을 마지막 희망을.

네리사는 품위를 애써 그러모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남자에게 말했다. “다스틴님과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녀는 뒤늦게야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덧붙였다. “저는 네리사 나톨리입니다.”

하인은 네리사가 용납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땀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뱉었다. “주인님께서 안에 계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문을 닫았다.

이건 정말 너무했다. 행상이나 배달부처럼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은, 네리사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그녀는 다스틴에게 하인의 결례에 대해 한마디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그날 저녁 집을 나설 때를 떠올렸다. 엘리자베스가 집에서 같이 카드 놀이를 하자고 즐겼고, 그녀는 슬픈 웃음을 지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불타는 집에서도 춤추고 즐기는 생각뿐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톨리 가문은 실제로 불타고 있었으며 엘리자베스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었다. 젊고 아름답지만, 어떻게든 지참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결혼할 가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네리사는

동생의 생득권이 사라진 매음굴과 노름판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자기도 모르게 속이 뒤틀렸다. 그러고는 애시턴은 마음은 착한 사람이야, 하고 되뇌었다.

문이 다시 열렸고, 네리사가 들어갈 준비를 하자 하인이 착각으로라도 존경심이 어렸다고는 할 수 없는 태도로 억양 없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들이지 않으시겠습니다.”

네리사는 한 발을 문간에 들이려던 자세 그대로 굳었다. 방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이 건방진 상인이 날 만나지 않겠다고? 피가 얼굴로 몰렸지만, 그녀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금 소동을 일으키면 더 모욕을 당할 뿐이다. 어머니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숙녀의 기준은 모욕을 감내하는 태도라 하셨다. 네리사는 이 무례한 하인이나 그 거만한 주인에게 품위 없게 행동하는 만족감을 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군요.”라고만 말하고는 우아하게 되돌아섰다.

네리사가 집으로 걸어갈 때쯤에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조약돌이 깔린 거리에 빗물이 흘렀고, 그녀가 피해 다니는 물웅덩이에서는 촛불과 초롱불의 그림자가 번덕스럽게 춤을 추었다. 화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불안과 절망이 자라났다.

다스틴에게 모욕을 당한 충격으로, 그 능멸이 무슨 의미인지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채무 변제 연기를 논할 기회조차 거부당한 것이다. 자신과 엘리자베스의 집을 되찾을 기회를 거부당한 것이다. 가는 길에도 사정은 암담했지만, 지금은 훨씬 절망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말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찬비를 맞으며 얼굴을 든 그녀는, 자신이 어느새 낯선 거리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좁고 어둡고 구불구불한 거리는, 마치 시야의 경계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습한 숲 같았다. 네리사는 서부원정지의 큰길과 대로를 꽤나 잘 알았지만, 이 구부러진 골목길은 무섭도록 낯설었다.

그녀가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뒤돌아섰을 때, 마차 바퀴가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네리사는 안개를 욱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마차 때문인지 우중충한 거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칠흑 같은 말 한 마리가 그녀의 코앞에서 앞발을 쳐들었다. 누군가 고삐를 뒤로 핵 당긴 것이다. 네리사는 쓰러져서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말은 금세 암전해졌고 마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부의 제복은 네리사에게는 생소했지만, 재단된 모양새로 보아 유행이 최소 한 세대는 지난 것 같았다. 번듯하고 고상한 노인을 마주한 그녀는 더욱 강렬히 불타는 수치심에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자기 이름이 들리자 핵 돌아섰다.

“네리사?”

낮고 부드러운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다. 네리사는 마차의 열린 창으로 다가갔다. 섬세하지만 관절염의 흔적이 완연한 손이 나무 창을 열고 있었고, 네리사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찾으려 애썼다.

“네?”

“거기 그렇게 비를 맞고 있지 말게. 쫘딱 젖었겠구먼. 너대니얼, 문을 열게.”

마부는 공손하고 우아한 태도로 뛰어내렸고,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그녀를 맞이했다. 네리사는 그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마차에 올라섰다. 얼떨떨한 나머지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솔직히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나무 의자에 편안히 자리를 잡는 동안 그녀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포동포동하고 쪼글쪼글한 얼굴, 흰 곱슬머리, 고령으로 거의 아이처럼 작아진 몸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찾아 머릿속을 뒤졌지만,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분명히 자기를 알고 있으며, 서부원정지 사교계의 대부분과는 달리 그녀에게 동정의 손길을 뻗으려 하는 이 여인에 대해, 티끌만큼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심히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마침내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을 향해 더듬더듬 말을 떼었다. “제가 결례를 범하는 것일까 저어되네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너그러운 미소를 짓더니, 네리사의 차가운 팔을 메마른 양피지 같은 손으로 토닥거렸다. “걱정할 것 없네. 우리가 만난 적이 없으니 자네가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지.” 네리사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번지자 여인은 더 활짝 웃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 가문의 옛 친구라네.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지.”

방금 이 노인이 윙크를 한 건가? 네리사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 여인이 오래전 연락이 끊긴 미망인 고모이고 네리사와 엘리자베스에게 재산을 나눠줄 만큼 부자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자, 숨이 턱 막혔다. 네리사는 그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지만,

재앙이 이렇게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구원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극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절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저희 처지를...” 네리사는 짐짓 손을 내저으며 말을 흐려서, 가문의 영락을 넘기지 내비쳤다. 이런 이야기는 예를 차린 자리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노인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지. 자네에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기서 노인은 창 밖에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시선은 묘하게 불안했다. “내가 자네의... 처지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리사는 정중한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마구 뛰었다. 노인의 정체는 아직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노인이 구원자일 가능성은 이제 눈앞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해결이요?”

“어쩌면 말일세. 그러니까... 자네, 카드놀이 하나?”

네리사는 이것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지만,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서부원정지에서 가장 손이 빠르기로 유명했다.

애시턴처럼 노름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운명이나 야생 거위 '친선전'에서 사교계 양숙의

지갑을 비운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노인이 그걸 아는 건가? 그리고 그녀에게

도전하는 건가? 네리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애시턴은 가문의

재산을 걸고 도박을 했다가 졌다. 그녀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음을 짓고 말했다. “네,

카드놀이 하죠.”

집에 이르러 마차에서 내리면서, 네리사는 비가 그친 데 감사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걷히고, 수천 개의 별이 밤이 드리운 도시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느닷없이 되돌아서서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잡았다.

“심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어르신의 성함을 모르네요.”

“아, 내가 이렇다니까. 아직 말을 안 했구먼. 내 이름은 칼로타라네.”

“그렇군요, 칼로타 님. 내일 저녁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함께

식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혼자 식사하는 게 좋아서 말이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마차 문을 닫은 후 나무 창을 쳤고, 마차는 휘청거리며 거리로 나갔다.

네리사는 머리가 핑핑 도는 채로 계단을 올라 대문 앞에 섰다. 노인은 어쩌면 돈방석에 앉아서 그걸 네리사와 엘리자베스에게 나누어줄 구실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카드놀이는 그저 허울이며, 자선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사회적인 위장인 것이다. 아니면 칼로타는 진지할지도 모른다. 네리사의 행복보다는 판이 큰 카드놀이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뭐 어때.* 서부원정지의 부유한 노인 중에는 그보다 더 괴팍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보기도 했다. 칼로타가 카드놀이를 하고 싶다면, 네리사는 기꺼이 응해줄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황혼의 어둠이 집을 뒤덮기 시작할 무렵, 네리사는 자기 방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만약 칼로타가 걸모습만큼이나 어리석다면, 그래서 약속을 완전히 잊었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 모든 게 짓궂은 장난이었으면 어떡하지? 만약...

네리사는 허리를 곧추세우고 곤두선 신경을 억지로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남은 가구 중 가장 좋은 것들, 밝게 타는 반질반질한 기름등 두 개, 거의 마지막 병인 케지스탄산 포도주 한 병과 잔 두 개를 실은 수레, 그리고 어둡게 번쩍이는 탁자 위에 놓인 카드 한 벌.

네리사는 일부러 이 카드를 골랐다. 나톨리 가문의 문장이 장식된 카드였던 것이다. 나톨리 가문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만큼 그 판돈을 상징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다.

판돈이라. 네리사는 카드 옆에 놓아둔 벨벳으로 덮인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겨우 그러모은 귀금속이 몽땅 들어 있었다. 거리의 평민에게는 큰돈이겠지만, 가문의 재산을 구할 수 있다면 작은 투자였다. 네리사는 가문을 다시 탄탄한 기반에 올려놓으려면 이겨야 한다는 걸, 그것도 여러 번 이겨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고 그 사랑스러운 노파가 겁을 먹고 꿈무늬를 뺄 정도로 빨리 이겨서는 안 된다. 이 일에는 세심한 수완과 주의가 필요하다.

“언니! 이것 봐!”

그녀의 생각이 산산이 흩어지고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란 와중에, 만면에 웃음을 띤 동생이 폴짝거리며 방에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홍색, 적갈색, 주황색의 커다랗고 너풀거리는 앞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네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움찔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둥글고 환한 얼굴을 밝힌 기쁨에 어울리도록 가까스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점점 곤궁해지는 집안 형편을 전혀 모르는 듯한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가끔 언더리를 내면서도, 네리사는 동생의 미모와 그 순수한 활기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라면 서부원정지의 어느 신사에게나, 또 적어도 하급 귀족 몇 명에게는 완벽한 배필이 될 것이다. 지참금만 충분하다면. 그런데 지참금은 애시턴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고, 이제 엘리자베스는 길고 외로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돈으로 나톨리 가문의 이름을 사려 하는 평민 야심가와 결혼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네리사는 그 생각에 몸을 떨고는, 엘리자베스가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방을 뛰어다니는 동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알겠어? 내가 뭘지 알겠어?”

네리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랄한 대답을 애써 억누르고, 무심하게 답했다.

“글쎄... 궁중 어릿광대일까?”

폴짝거리던 엘리자베스는 마치 공중에서 밧은 듯 멈춰 서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어릿광대? 언니는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녀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결국 미소를 짓더니 아름다운 화음과도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네리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통에, 네리사는 하마터면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이 주 후면 랭카스터 가문의 연회가 있어. 나도 이제 다시 갈 수 있게 됐어."

그녀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기쁨에 겨워, 무뚝뚝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언니를 이해시키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네리사의 어깨를 붙들었다. "언니는 우리가 새 드레스 살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랭카스터 부인께서 이번에는 우리 모두 의상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갈 수 있게 됐어!"

그녀는 폴짝거리며 저쪽으로 뛰어가서는 새침한 자세를 취했다. 네리사는 몸을 가누고는 카드와 포도주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연회 주제가 '시간'이야." 엘리자베스가 짐짓 진지한 체하며 말했다. "이제 내가 뭔지 알겠어?"

네리사는 다시 동생에게 주의를 돌리고 동생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자,

엘리자베스가 오래된 갈색 드레스에 조심스레 핀으로 꽃은 양피지 조각과 형겅 조각으로 반쯤 뒤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동생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긴 했지만, 지금은 알아맞히기 놀이나 할 때가 아니다. “나무니?”

엘리자베스는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자세를 풀더니 네리사를 향해 곱슬머리를 흔들었다. “아냐, 이 바보야. 가을이란 말이야. 나뭇잎을 보면 모르겠어?” 짧은 순간, 네리사는 동생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에서 근심을 보았다. 자투리 양피지와 형겅으로 어설프게 장식한 철 지난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느낄 법한 희미한 불안감이었다.

네리사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얼싸안았다.

“당연히 알지. 넌 가을 그 자체인걸. 그날 밤 다들 네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지?” 엘리자베스는 도도한 동작으로 빙글 돌아 네리사의 팔에서 빠져나가더니 깔깔 웃었다. “고마워, 언니. 이제 다시 나뭇잎을 만들러 가야겠어. 모리스가 도와주고 있긴 한데,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그렇게 그녀는, 요정처럼 가볍게 방을 빠져나가 사라졌다. 한숨을 쉰 네리사는 긴장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카드를 집어 들고는 아무 생각



없이 섞기 시작했다. 네리사가 집을 걱정하는 만큼,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동생을 시집보낼 만큼 재산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마음이 아주 편해질 테고, 엘리자베스의 암울하진 미래만 생각하면 들던 수치심도 사라질 것이었다.

‘엘리자베스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을 구해야 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초조하게 이를 갈았다. 그녀는 해낼 수 있다. 바로 오늘 밤 해낼 것이다.

“아니, 괜찮네. 술은 끊었다네.” 칼로타는 작은 손을 내저어 네리사가 권한 포도주 잔을 물리쳤고, 네리사는 약간 실망한 채 잔을 다시 탁자 위에 놓았다. 때로는 술이 약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네리사가 그걸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했고 날카로웠으며 준비되어 있었다. 빨리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알다시피 내 나이에는...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네.” 칼로타는 다 안다는 듯이 씩 웃었고, 네리사는 정중한 웃음으로 답했다. 사실 이 노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말이다. 얼마 전에 ‘고령’을 지났고 아직 ‘사망’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네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게임을 할까요? 여명? 운명? 아니면 야생 거위?” 네리사는 내심 야생 거위를 하고 싶었다. 케지스탄에서 비롯된 이 게임에서는 빠르게 판돈을 올리는데, 그녀는 거기에 특별히 능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중 어느 게임이든, 아니 손님이 제안하는 게임이라면 무슨 게임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니, 아니. 야생 거위는 내겐 너무 속도가 빠르다네. 나는 단순한 게 좋아. 아주 단순한 것 말이야.” 노인은 자기 말에 맞장구라도 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네리사는 무슨 게임인지 들으려고 기다렸다. 그녀는 다시 긴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먼저,” 그렇게 노쇠한 몸을 지탱할 용도라기엔 지나치게 튼튼해 보이는 흑단 지팡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는, 칼로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판돈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노인은 잠깐 굳어지는 듯,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안으로 쪼그라드는 듯 보였다. “판돈 말이야.”

네리사는 포도주 잔을 비우고 어설픈 동작으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벨벳 상자를 집어 들고 자랑스럽게 보이면서 뚜껑을 열었다. 안에 든 것이 반짝거렸다. “제겐

귀금속이 있어요.” 그녀는 애써 품위 있게 말했다. “몇 가지는 몇 세대 동안이나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거죠. 이걸로 말하자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커다란 사파이어가 박힌 금실 세공 빗을 꺼냈다. “저희 할머니가 결혼식 날 받으신 거예요. 이걸,” 그녀는 조심스레 세 개의 루비가 박힌 검집에서 조심스레 단검을 뽑으며 말했다. “저희 종조부께서 궁정에서 쓰시던 거고요. 사실 그냥 걸치레였지만, 종조부께서 당신이 군인이라도 된 듯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지만, 이내 칼로타가 자신을 불편하리만치 냉혹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단검을 상자에 넣고 노인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아니야.” 노파는 네리사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숨을 내쉬었다. “더 큰 걸... 걸어야지.” 네리사가 더듬거리며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노파는 한 손을 살짝 들어 물리쳤다. “제일 중요한 것을 걸어야 돼. 아가씨가 이 세상 무엇보다 원하는 게 뭐지?”

네리사는 노파가 미친 건지, 농담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잠시 망설였다. 가문의 빗을 전부 갇아주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온갖 가능성을 따지느라 네리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다.

“대답하기 전에, 뭘 요구할지 잘 생각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는 법이니까.” 칼로타는 미소를 지었고, 네리사는 이게 시험이라는 걸 퍼뜩 깨달았다. 네리사가 무슨 말을 할지 보려고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계산된 금전적 판단이 아니라 충실한 아내의 진심인 것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말을 골랐다.

“사랑하는 제 남편 애시턴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또 재산도 그대로 가지고요.” 그녀는 마지막 부분이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덧붙인 말처럼 들리게 하려고 노력했다.

“훌륭해. 대가는? 자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뭔가? 늘 자네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온전히 자네만의 것인 게 뭔가?”

스스로 수수께끼에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네리사는 불쑥 “심장이죠,” 하고 답을 말할 뻔했다. 하지만 이 쇠약한 노파가 자기 심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날 뻔했다.

그 대신, 그녀는 기묘하게 번뜩이는 칼로타의 눈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가장 훌륭한 대답은 무엇일까? 마침내 그것이 떠올랐고, 그녀는 마치 저녁 식사 전에 간식을 달라며 조르는 아이에게 하듯 칼로타에게 짐짓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물론 당신께 선택권을 드려야지요. 제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것 중에 당신이 갖고 싶은 걸 뭐든지 걸겠어요.”

“결정됐군,” 칼로타는 네리사가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쏘아붙였다. 그 날카로운 말투에 네리사는 깜짝 놀랐다. 심지어는 그 눈 속의 냉기가 순간 깊어지면서 금속성의 불꽃이 튀는 듯했다. 노파가 네리사의 마음에 장난을 치고 있었다. 사실 그보다는, 자신의 압박감과 불안감에 가문의 빛을 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숨 막히는 기대감이 결합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일 공산이 높았다. 그녀는 칼로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지만, 밀가루 반죽같이 부드러운 뺨, 미소와 웃음 때문에 통통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리사는 그런 노파에 대해 나쁜 생각을 품은 자신을 꾸짖었다. 살짝 비정상이긴 하지만, 곧 자신을 구원해줄 괴짜 노파일 뿐이다. 노파가 네리사와 엘리자베스에게 재산을 줄 구실로 가상의 물건을 걸고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면, 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바보 늙은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동요를 부르며 울동이라도 할 것이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좋아.” 칼로타는 카드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한 손으로 능란하게 나누었다. “규칙은 간단해. 내가 카드를 한 장 뽑은 다음, 자네가 한 장 뽑는 거야. 그렇게 각자 세 장씩

뽑은 다음 한 장씩 카드를 뒤집는 거지.” 그녀는 네리사가 알아들었는지 묻기라도 하는 듯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 뒤집었을 때 제일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게 뭐지? 네리사는 노파가 노망이 난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기량에 좌우되는 게임이 아니고 단순한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다. 그래도, 네리사는 재산을 내줄지도 모르는 노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었다.

“높은 카드가 이긴다고요. 잘 알겠어요.” 그녀는 카드를 뽑으라는 뜻으로 칼로타에게 손짓을 했다. 노파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자 눈처럼 새하얀 곱슬머리가 흔들렸다. 노파는 손을 뻗어 카드 한 장을 집었다. 네리사가 뒤를 이었고, 두 사람 앞의 탁자에는 이내 카드가 세 장씩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다. 칼로타는 한 마디도 없이 첫 번째 카드를 뒤집었다.

“이런, 망했구먼.” 노파는 중얼거리더니 아이처럼 깔깔대며 웃었다. 카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왕관 3 이었다. 그녀는 양손을 마주 쥐고 무릎에 올린 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네리사를 바라보았다. 그 열성에 약간 당황한 네리사는 첫 번째 카드를 뒤집었다. 빨리 게임을 마치고 진짜 거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카드는 뱀

12 였다. 나쁘지 않다.

칼로타는 다음 카드를 핵 뒤집어 뱀 7 인 것을 확인하고는, 또 다시 기대로 불타는 눈빛으로 네리사를 올려다보았다. 네리사는 망설였다. 고민의 여지도 없고 전략도 없었지만,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턱대고 카드를 뒤집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카드 두 장을 놓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카드를 뒤집었다. 사자 8 이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바보 같다. 게임도 바보 같고, 판돈도 바보 같고, 노파도 바보 같지만, 실제 게임, 그리고 게임에 걸린 것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었다. 네리사는 게임이 끝난 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 그녀는 원래 상대의 표정을 읽고 행동을 예측하는 데 능했다. 그녀는 칼로타의 손이 마지막 카드 위에 머무는 동안 노파를 가만히 살폈다.

네리사는 왕관의 여제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이걸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카드에서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칼로타의 눈에서, 육식동물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빛이 번뜩였다. 네리사는 흠칫했지만 바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게 웬 미친 짓인가? 사랑스러운 노파가 네리사의 가문에 재산을 내줄 태세로 앉아 있는데, 네리사는 가상의 물건이 걸린 게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내어

웃고는 자신의 후원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당신이 유리하네요. 제 카드는  
뭔지 보죠..."

별의 여제가 나오자 네리사는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칼로타는 그저  
혀를 차더니 바로 몸을 추슬러 일어섰다. 네리사가 미처 한 판 더 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파는 사과를 하고 방을 나섰다. 네리사는 자기가 노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다.

"잘했어, 아가씨. 내가 알아서 나가겠네." 칼로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네리사는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한 판 더 하실 거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케지스탄산 백포도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아니면—"

"말하지 않았나. 술은 끊었다고.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내일 밤에 다시 오겠네."

"아, 예. 물론이죠. 전—"

"'자네가 원한다면'이라고 했다네. 그러니 내일 저녁까지 잘 생각해보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나섰다. 네리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 사냥감을 구슬려서



가문을 돕게 하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 노파는 펼쳐진 책과도 같았고, 네리사는 아직 배울 게 많았다.

현관 계단에 서서 떠나는 마차를 지켜보며, 네리사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몇 십 분 전만 해도 따뜻했는데, 지금은 축축하고 매서운 한기가 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게다가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치 악의를 품고 몸을 도사리는 생물 같았다.

온기와 빛, 그리고 어쩌면 포도주 한 잔이 간절해진 네리사는 집 안을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때, 부드럽게 삐걱거리며 멀어져 가는 칼로타의 마차 소리와는 다른, 무겁고 텅텅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네리사는 촉수처럼 흔들리고 휘도는 안개 사이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

네리사가 짜증이 나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서서히 커다란 수레의 형체가 나타나 느릿느릿 안뜰로 들어왔다. 마부는 마치 유인원처럼 좌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떤 배달부가 이런 밤에 배달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뒷문도 아닌 앞문으로 찾아오다니. 그녀가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절마저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

“나틀리 부인이십니까?” 건장한 평민이 수레에서 내리더니 허리띠에서 접힌 양피지를 꺼냈다.

“네, 제가 나틀리 부인이에요.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뭘 배달하러 오신 거죠?”

“죄송하지만 부인의 부군입니다.”

마침내 수레 뒤에 실린 조잡한 나무 관을 본 네리사는 다리가 풀렸다. 모리스가 옆으로 달려왔고, 그녀는 숨이 목에 걸린 채 그에게 기댔다.

“애시턴? 죽었... 나요?”

남자는 강인한 얼굴에 염려와 동정을 띄운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저런, 모르셨습니까?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이래선 안 되지요.”

그는 양피지를 네리사에게 건넸고, 그녀는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애써 할 말을 찾았다. 무슨 말이든 해야 가슴 속의 숨 막히는 고통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소지품은요? 어디 있죠?”

남자는 장화 바닥을 계단에 문지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군이 가진 것은 모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재산은 수의이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리사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남자가 안절부절못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부군을 뒷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 네리사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뜰을 나가 저택 뒤쪽으로 사라지는 수레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아직 양피지를 들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닫고는, 그것을 펼쳐 눈을 찌르는 눈물 너머로 글을 읽으려고 애썼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난생처음으로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겼다. 형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가문에 얼마나 큰 불행이 닥쳤는지 실감한 것인지도 모른다. 애시턴은 그녀를 무척 아꼈다. 그녀의 명랑함과 천진난만함에서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격하게 울어서, 네리사는 자기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녀를 위로해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어떻게 해야 엘리자베스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랭카스터 가문의 연회를 잊지 마. 아직 의상을 완성하지 못했잖아. 모리스한테 가서 나뭇잎 자르는 걸 거들어 달라고 하지 그러니?”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종종걸음으로 사라졌고, 네리사는 혼자 우울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악마와 마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기에 이 모든 걸 그저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런 상상을 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지만, 그러고 보니 서부원정지에서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공포가 피어올랐다. 이 노파, 이 마녀가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젠 불쌍한 엘리자베스까지 끌어들이려고 있다. 그녀는 대체 어떤 비참한 운명을—?

네리사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노파가 오늘 밤 찾아온다는 것이다. 손을 뺄려면 땅을 곳에 있는 재산을 차지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부인? 부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모리스는 문이 열리자마자 칼로타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자 당황했는지, 혼란에 빠진 강아지처럼 그 뒤를 따랐다. 양손을 꼭 맞잡은 채 주인에게 말을 할 때는 최대한 큰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네리사는 칼로타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나서, 입구와 층계가 내려다보이는 난간으로 성큼성큼 나갔다. 흑단 지팡이로 대리석 계단을 쿵쿵 짚으며 작은 골격에 어울리지 않는 힘찬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칼로타의 뒤를, 모리스가 아직도 따르고 있었다. “손님을 위층으로 안내하세요, 모리스.” 네리사는 칼로타에게 안내가 필요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안심시키듯 대답했다. 실상은 칼로타가 방에 도착하기 전에 늙은 하인 모리스가 따라잡으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허례허식이야말로 바로 귀족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었다.

칼로타는 짧은 인사치레를 한 후, 의자에 앉은 채 지팡이 머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 이번에는 뭘 걸까...”

노파는 저속한 제안이라도 하는 듯이 말끝을 흐렸고, 네리사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오늘 밤 뭘 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두었다. 그녀는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양손을 조심스레 무릎 위에 포갠 다음, 배운 내용을 암송하는 모범생처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제가 가진 것 중에 당신이 갖고 싶은 걸 뭐든지 걸겠어요.”

“자네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온전히 자네만의 것인 그것 말인가?”

네리사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 “저는 엘리자베스의 지참금을 갖고 싶어요.

서부원정지의 귀족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이요.”

“결정됐네.”

네리사는 칼로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흠칫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굶주린

눈빛이라 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하지만 노파의 장밋빛 불에 감돌던 생기가 심술궂은

결의에 가까운 것으로 변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건 노파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고,

네리사는 칼로타의 돌변한 태도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칼로타는 말 없이 한 손을 뻗어, 굳더더기 없고 우아한 동작으로 카드를 나누었다.

네리사를 힐끗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희멀경고 주름진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광적인

빛이 깃들어 있었고, 그 눈빛을 본 네리사의 가슴에는 문득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공포를 잊으려고 눈길을 돌리고 혀를 힘껏 깨물었다. 칼로타는 제일 위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았다.

네리사도 카드를 한 장 뽑아 자기 앞에 놓았다. 칼로타도 똑같이 했고, 두 사람은

카드가 세 장이 될 때까지 번갈아 가며 카드를 뽑았다.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칼로타가 마침내 손을 뺀어 사자 11 을 뒤집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네리사를

올려다보았다. 네리사는 탁자 위의 카드를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애써 억눌렀다.

그녀는 손이 떨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카드를 뽑아 뒤집었다. 왕관의 대천사였다.

“저런. 운이 좋구먼.” 칼로타는 미소를 짓고는 짐짓 골치 아프다는 듯이 혀를

찧지만, 네리사는 그 목소리에 진정하고 강한 불쾌감이 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자 네리사는 안심했다. 유일한 문제는 게임이 끝난 후 어떻게

지참금 액수를 협상하느냐였다.

칼로타가 카드를 뒤집자 왕관 9 가 나왔고, 네리사의 카드는 뱀 3 이었다. 칼로타는 손을 마지막 카드 위에 둔 채, 네리사가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머뭇거렸다.

“비긴 걸로 칠 수도 있다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워낙 큰판이니 한 번쯤은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겠지.”

네리사는 이제 노파가 미쳤다는 걸 확신했다. 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카드가 나왔으니 네리사는 사실상 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비긴 걸로 치겠는가? 게다가

마지막 카드 게임에서 마지막 한 장을 뒤집기 전에 물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노파가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파는 어쩌면

네리사만큼 큰 빛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가문에 줄 재산이라곤 동전 한 푼도

없으면서 장난을 치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 네리사는 엘리자베스를 시집보낼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익살극에 끝까지 놀아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자하고 정중한

칼로타의 미소에 미소로 답하고, 손을 저어 제안을 물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이길

기회가 없어질 텐데요? 그럴 순 없죠. 그 카드가 별의 대천사일지도 모르잖아요."

칼로타는 별의 대천사가 정말 자기 손가락 아래 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라도 하는

듯이 카드를 내려다보더니, 네리사가 깜짝 놀랄 만큼 맹렬한 기세로 카드를 뒤집었다.

사자 2 다.

두 여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한 순간을 얼버무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음을 알려주는, 연습된 웃음이었다.

그러나 네리사는 긴장감이 더러운 액체처럼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칼로타는 빈 손으로 지팡이 머리를 억세게 움켜쥐었다. 카드를 다시 뒤집어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할 수라도 있다는 듯이, 쪼그라든 손가락이 마지막 카드 위를 맴돌았다.

“아, 칼로타. 덕분에 깜짝 놀랐네요...” 네리사가 입을 열었지만, 노파는 이번에도 재빨리 일어서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네리사는 지참금을 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며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결국, 칼로타가 약속을 어길 작정이라 해도 자기는 잃을 게 없으며 칼로타가 약속을 지킬 작정이라면 칼로타가 앞문을 나서기 전에 말을 꺼내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칼로타, 이제 이야기를—”

“아니.”

그 한 마디는 마치 더러운 증기처럼 떠나는 노파 뒤로 흩어졌고, 네리사는 숨을 들이켰다. 문에 다다른 칼로타는 핵 돌아섰다.

“아니, 이야기할 건 없네. 나틀리 부인, 자네는 무엇을 걸지 생각해보게. 내가 내일 또 오기를 바란다면 오겠네.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네리사는 달가닥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차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모두 헛일이었던 걸까? 칼로타를 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고, 노파의 재산은 그저 잔인한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 네리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엘리자베스의 지참금. 그녀가 원하는 건 그뿐이었다. 다른 모든 걸 빼앗겨도, 동생에게 안락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사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동생은 이제 아름다움밖에 내세울 것이 없었고, 안락하지 않은 삶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참금이 기적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기를 반쯤 기대하면서 어둠 속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젓고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을 품은 자신을 꾸짖었다. 칼로타는 갔고, 애시턴은 죽었고, 게임은 끝났다. 엘리자베스는 천한 평민과 결혼해야 할 것이다. 네리사는 남은 방법을 따져보고, 빗쟁이들에게 편지를 한 번 더 돌려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해봐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지금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고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모리스?” 그녀가 외쳤고, 늙은 하인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예, 마님.”

“서재로 등불을 가져다줘요. 편지를 좀 쓰려고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쏘아붙이고는 곧 후회했다. 끝까지 가문을 저버리지 않은 모리스인데, 자기가  
절망했다고 그에게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 “고마워요, 모리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고,  
드물게 따뜻한 이 한 마디에 모리스는 품위 있는 고갯짓으로 답하고 복도를 따라  
비척거리며 멀어졌다.

네리사는 막상 기한 연장을 구걸하는 편지를 쓰자니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아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서두를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모리스가 등불을  
가져올 때까지는 시작할 수가 없다. 그녀는 사냥개에게 몰린 동물처럼, 오싹하고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혹시나 불가피한 일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리사는 처음에 환청을 들은 줄 알았다.  
그러자 소리는 다시 더 크게, 더 고집스럽게 들려왔다. 그녀는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다. 마법처럼 지참금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유치한 공상과 이  
소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애시턴이 돌아왔을 때보다 더 좋은

결말이 찾아올 거라 믿을 이유도 전혀 없었다. 소리가 또 들려오자, 그녀는 의례를 생략하고 직접 문을 열기로 결심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 선 사내아이는 도저히 그렇게 소란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는 네리사를 보고 모자를 들어 인사를 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에서 봉인이 된 편지를 꺼냈다.

“마님, 편지입니다.” 아이가 내민 편지를 받아 든 네리사는, 접힌 편지가 검은 비단 리본과 밀랍에 찍힌 정교한 봉인으로 밀봉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동전을 한 닢 내밀었지만 아이는 몸을 움츠렸다. “죄송하지만 마님,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벌써 샀을 받았거든요.”

아이의 성실함에 흐뭇해진 네리사는 미소를 짓고 다시 동전을 내밀었다. 아이는 동전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양손을 들었고, 네리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안 됩니다, 마님. 저는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는 네리사가 동전을 억지로 쥐어줄까 걱정스럽다는 듯이 동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누가 아이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을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 그녀는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웃음소리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으면서 봉인을 살펴보았다. 가문의 문장이었지만, 생소한 것이었다. 서부원정지 밖의 사람이 보낸 걸까? 대체 누가 그녀에게 용건이 있을까?

애시턴이 그 몇 달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데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알 길도 없다는 데 생각이 닿자, 명치에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빗쟁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가문을 등에 업고 있으며, 멀리서 편지를 보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 하는 빗쟁이가.

네리사는 자신의 지나친 상상에 넋더리를 내며, 봉인을 떼고 리본을 풀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궁금한 심정으로, 그 다음에는 떨리는 손과 몇 달 만에 가장 후련한 마음으로.

지참금이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엘리자베스의 지참금이다. 네리사는 칼로타를 보내준 드높은 천상의 천사에게 감사한 다음, 힘껏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자베스! 얼른 이리 오너라!”

조용한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생소하게, 그리고 무례할 만큼, 기겁할 만큼 크게 울렸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었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 단 한 가지 자신이 원한 것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네리사 언니, 왜 그래?” 엘리자베스는 총총거리며 층계를 내려왔다. 동생은 우스꽝스러운 가을 색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고, 그 뒤로 나뭇잎이 팔락거렸다. 엘리자베스가 서두는 통에 몇 장은 나풀거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네리사는 동생이 시든 가을 나무처럼 낙엽을 떨구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애써 그 생각을 떨치고 걱정스러워하는 동생에게 우아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엘리자베스, 좋은 소식이 있단다. 어떤 자작님,” 그녀는 이름을 확인하려고 편지를 다시 보았다. “델피누스 자작님은 우리의 먼 친척이신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구나.” 그녀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애써 보람이 없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혼인 친척 젊은이들을 위해서 돈을 떼어 두셨대.”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환호성을 지르기를 잠시 기다렸지만, 동생은 그저 그녀를 멍뚱뚱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지참금이야, 엘리자베스. 네 지참금이 생긴 거야. 게다가 아주 넉넉하단다.”

엘리자베스는 들뜬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지르고 손뼉을 치면서, 기쁨을 못 이겨 몸을 들썩거렸다. 이번만큼은 네리사도 동생의 흥분을 굳이 가라앉히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의 근검절약과 구걸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시집갈 것이고, 네리사 나틀리는 다시 서부원정지 사교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었다.

“지참금! 나 귀족에게 시집가겠네.” 엘리자베스가 나뭇잎을 바스락거리며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다. 네리사는 동생을 꾸짖고 싶은 충동을 애써 눌렀다. 승리의 순간 아닌가. 하고 싶은 대로 뛰고 돌아다니게 두자.

“모리스!” 엘리자베스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네리사는 동생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녀가 미쳐 입을 떼기도 전에 동생은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재잘대기 시작했다.

“내 남편은 군인일까? 돈 대장님이 신붓감을 찾고 계신다던데, 그분은 아주 잘생긴 분이셔. 아니면 조신일까? 나, 휘팅턴 부인의 지난번 연회에서 레이먼드 해스틴이랑 한참 춤을 췄는데, 그 사람 나한테 반한 것 같아. 또 셀레스티 말로는, 랭카스터 부인의

연회에 참석하려고 엔트스티그에서 만을 건너 오는 귀족이 몇 사람 있다. 그 중에  
관찰은 신랑감이 있을 거야..."

네리사는 동생의 수다에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신랑감을 고를 때가 올  
것이다. 네리사는 엘리자베스의 어깨 너머로 모리스를 보고 웃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아, 모리스한테 당장 이야기해야겠어! 모리스!" 엘리자베스는 몸을 뒹 돌리다가  
균형을 잃고 모리스와 부딪힐 뻔했고, 모리스는 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엘리자베스는 풀린 드레스 밑단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다가 필사적으로 모리스의 팔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모리스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가 균형을 잃으면서 등불이  
돌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이 붙은 기름이 고였다.

네리사는 비명을 지르다가 뚝 멈췄다. 엘리자베스와 모리스는 조심스레 발을 떼어  
불타는 기름을 피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처럼 네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한동안 춤추는 불꽃에 넋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문득  
모리스에게 소리쳤다. "빗자루예요. 빗자루를 가져와서 불을 꺼요." 노인은 절뚝거리며  
사라졌고 네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름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살폈다.



그녀는 흥분과 공포로 몸서리치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마주 바라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엘리자베스. 다 괜찮을...”

그녀는 말을 흐렸다. 연기 가닥을 따라가던 그녀의 눈길이 엘리자베스가 입은 의상의 밑단에 닿은 것이다. 양피지 나뭇잎 하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네리사의 눈앞에서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은 나뭇잎을 따라 빠르게 번졌고, 네리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대여섯 개에 불이 붙었다. 그녀는 목청껏 비명을 지르고, 서둘러 기름 웅덩이를 피해 엘리자베스에게로 갔다. 그녀는 그제야 밑을 내려다보고 불길을 보았다. 네리사가 미처 손을 뺀기 전에, 동생은 순수한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더니 불타는 기름을 피해 달아났고, 그 바람에 불꽃이 화르륵 타올라 드레스의 반을 뒤덮었다. 네리사가 뒤를 쫓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공황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내달렸다. 네리사는 가까스로 동생을 따라잡아 그녀를 끌어안았다. 열기가 그녀의 얼굴에 와 닿았고, 엘리자베스는 빠져나가려고 맹렬히 버둥거렸다. 네리사는 손으로 불길을 내리쳤지만 불길은 사방에 불티를 흩날리며 점점 강해질 뿐이었다. 마침내 머리채에 불길이 피어오르자 엘리자베스는 고통으로 울부짖었고, 네리사의 손을 떨쳐 냈다. 하지만 네리사가 드레스를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당긴 덕분에 낡은 솔기가 뜯기면서 드레스가 벗겨졌고, 엘리자베스는 바닥에 쓰러졌다. 네리사는 얼른 뛰어가서 동생의 머리채에서 불길을 꺾다. 살이 타는 냄새로 속이 울렁거렸다.

네리사는 즉시 모리스를 보내 치유사들을 불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금방 와주었다. 그들은 몇 시간이나 엘리자베스를 돌보았고, 그 결과 엘리자베스의 목숨은 구했지만 그 미모는 구하지 못했다. 끈적거리는 붉은 물집이 그녀의 얼굴을 망쳐놓았고, 치유사들의 말에 따르면 물집이 나중에 흉터가 될 거라고 했다. 머리는 바짝 잘랐고, 두피는 반이 짓무른 상처와 그슬린 살점이었다. 한쪽 눈은 망가졌고, 텅 빈 눈구멍 위로 눈썹이 기괴하게 늘어졌다. 입술의 남은 부분은 고통스러운 조소라도 짓는 듯 비뚤어졌다.

네리사는 새벽까지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연고와 물약 덕분에 엘리자베스도 마침내 선잠이 들었고, 네리사는 자기 실수에 대해 생각했다. 노파를 너무 우습게 보았던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보다도, 칼로타는 네리사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망쳐놓았다. 그녀는 지참금이 엘리자베스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깨닫고, 넌더리를 내며 이를 갈았다. 자기만의 문제라면 다시는 그 끔찍한 여자를 보지 않을 것이었다. 가난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며 상처를 회복했겠지만, 엘리자베스가 당한 일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칼로타는 그녀의 소망을 거꾸로 이용했고, 그 탓에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네리사가 어떻게든 그 일을 돌이키지 않는 한, 평생 추하게 살며 고통을 겪을 것이었다.

그녀는 간절히 염원하는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두 번 도박을 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 번 끔찍한 일이 닥쳤다. 그 늙은 마녀에게 세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차갑고 씩씩한 확신에 도달한 네리사는 마음을 정했다. 오늘 밤, 네리사는 칼로타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판돈을 높일 것이다. 오늘 밤만큼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었다.

모리스는 두터운 장막 사이로 늙은 매처럼 창밖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며 자책했고, 네리사는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하면서도 그 끔찍한 사고 뒤의 진실만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전장의 군인처럼 자리를 지키면서, 두 사람이 기다리는 마차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거리를 살폈다. 두

가지 비극이 있기 직전 네리사가 손님을 접대하고 카드 놀이를 했다는 사실을 모리스가 이상하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네리스는 포도주를 한 잔 더 따르고 싶은 것을 참고 다시 한 번 칼로타에 대해 생각했다. 그 늙은이와 꼭 게임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간에서 돌려보내도 된다. 하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칼로타는 네리사가 원해야만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네리사가 원한다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녀는 먼 곳의 시계가 마을 너머로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노파가 얼마나 궁상맞은 동네에서 기어 나온 것일까 생각했다. 문득, 게임에서 이겼을 때 일어난 일은 게임에서 졌을 때 일어날 일에 비해서는 시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을 뽑아낸다는 괴물에 대한 소문이 생각났지만, 그녀는 애써 섬뜩한 심상을 떨쳐버렸다. 칼로타가 곧 올 테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노파는 마치 이름만 부르면 불러낼 수 있다는 악마 같았다. 네리사는 부패한 구덩이에서 흥측하고 사악한 정령을 불러내는 상상을 하며,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불러보았다.

“마님,” 모리스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셨습니다.”

네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모진 결의가 어렸다. "그렇군요. 안으로 들이세요." 네리사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다시 게임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까지 두 번 이기고도 매번 잃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오늘 밤 모든 게 계획대로만 풀린다면, 이게 거의 마지막 병이라는 사실도 무의미해지겠지. 그녀는 씹싸름한 술을 입 안에서 굴리며 생각했다. 물론 이— 이 마녀가, 아니 악마가 상대인 만큼, 일이 계획대로 풀린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결심을 했고, 이제 게임의 끝을 볼 때가 됐다. 커튼에 모리스를 배치한 것이 새로운 전략의 첫 수였다. 오늘 밤만큼은 허를 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 대신, 그 고약한 흑단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네리사의 귓가를 때렸다. 모리스가 벌써 내려가서 문을 열었을 리는 없다. 사실 커다란 참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칼로타는 집에 들어와서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지팡이가 계단에 한 번 부딪힐 때마다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는 계단을 올라서 방으로 다가왔고, 모리스의 발소리가 그 뒤를 쫓았다.

칼로타는 뛰어들다시피 방으로 들어왔고, 모리스가 무의미하게 말했다. “칼로타  
마님이십니다.”

네리사는 일어서서 손님을 맞기는커녕 오히려 의자에 더 깊숙이 앉았다. 칼로타가  
자기만큼이나 게임에 굶주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는 노파가 마음껏  
자신을 쫓게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칼로타는 걸레를 눈치챈 티를 내지 않았지만, 네리사는 거기 속기에는 사교계를  
너무 잘 알았다. 노파는 양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끄 하는 신음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네리사는 마침내 카드에서 눈을 들고 딱딱하고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포도주 드시겠어요?”

칼로타는 이빨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괜찮네.”

두 여인은 서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칼로타는 이제, 네리사가 마차에서 만났던  
장밋빛 불의 미망인이 아니었다. 불은 움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이빨은... 왠지 더

날카로워진 듯했다. 눈에는 간절하고 게걸스러운 갈망의 빛이 어려 있었고, 네리사는 문득 지난 이틀 밤이 노인에게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네리사의 가문에 끔찍한 고통을 불러오느라 힘을 써버린 것이리라. 네리사는 포도주를 한 모금 더 훌쩍이고, 둘 사이에 감도는 침묵을 유지했다. 어머니께서는 뭔가를 얼마나 원하는지 적에게 보여주는 건 끔찍한 실수라고, 절실함은 곧 약점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칼로타의 뭉툭한 손이 초조하게 지팡이 머리를 쥐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모양새만 보아도, 네리사는 노파가 오늘 밤의 게임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좋다. 그녀는 이 절실함을 지렛대로 이용해 노파를 움직일 것이었다.

네리사는 벨벳 귀금속 상자를 집어 들고는, 뚜껑을 열어 칼로타에게 내용물을 내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과 약속을 걸고 게임을 했지만, 이건 다이아몬드와 금이에요. 좀 더... 실질적인 물건을 걸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칼로타의 눈에서 공황 같은 것이 깜박였고, 노파는 턱을 앙다무는가 싶더니 이내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네. 그건 안 되지. 내가 자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려면, 자네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 하네." 그녀는 마치 파충류처럼 혀를 날름거렸고, 네리사는 언뜻 혀가 갈라져 있는 걸 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이에 칼로타는 진실하면서도 심술궂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오늘 밤엔 무엇을 걸까? 오늘 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

네리사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만약 내가지면 노파가 어떻게든 이 심장을 가져가겠지.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제가 바라는 건, 엘리자베스가 다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뿐이에요.”

칼로타는 대답하려고 숨을 들이켰지만, 네리사가 손가락을 들어 저지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엘리자베스가 게임을 하는 중에도 아름답고 행복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게임을 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때까지 말이죠.”

칼로타는 당혹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기기도 전에 판돈을 내놓으라는 건가? 허튼소리.”

“당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졌을 때 마음대로 빼앗을 수도 있겠죠.”

네리사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엘리자베스가 잠시라도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할



뿐이에요. 다른 걸 걸자고 하신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두꺼비가 열린 보석함을 향해 손을 살짝 내저었고, 칼로타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닐세, 그건 안 되지.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청일세. 이기기 전에 판돈을 가질 순 없지.”

네리사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악한 노파를 상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파의 속내를 저울질했다. 마치 예의범절의 밧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짐짓 편안한 미소를 띄우고 칼로타의 눈에 어린 불안감, 초조하게 씹룩거리는 손가락, 기대감으로 치켜 올라간 어깨를 살폈다. 노파는 온몸으로 절실함을 내보이고 있었고, 감추려 해도 소용없었다.

네리사는 한동안 칼로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는, 졌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보석함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고개를 무례하게 기울인 채, 칼로타가 보석과 장신구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다.

칼로타는 분에 겨워 이빨을 드러냈다.

“어쩔 수 없군.” 그녀는 손뼉을 탁 쳤고, 네리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 순간 등불이 어두워지고 칼로타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잉겔불처럼 깜박였다. 노파는 의기양양하고 탐욕스럽게 웃었고, 네리사는 평정을 찾으려고 애썼다. 칼로타는 방금보다 더욱 쇠약하고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즉시, 맨발로 바닥을 딛은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거의 뛰다시피 하는 소리였다. 칼로타는 한쪽 입가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운 채 네리사를 마주보았다. 네리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특별한 손님을 바라보듯이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그 속은 고통스럽게 뒤틀리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메마른 선의로 빛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렸지만, 두 여인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잠옷만 걸친 채 네리사의 곁으로 달려갔다. 황금빛 머리칼이 어깨 위로 늘어지고,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아, 언니.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 뭐였냐면... 앗, 이런.” 엘리자베스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킁킁거리며 웃었다. “잊어버렸네.”

네리사는 마침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거 재미있구나, 엘리자베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손님이 계셔서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칼로타를 처음 보는 양 흠칫했다. “아, 방해해서 미안해.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그녀는 징그러운 노파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홀린 듯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난... 가야겠지?”

노파는 엘리자베스를 찬찬히 살폈고, 그녀는 네리사의 의자 뒤로 숨어 몸을 움츠렸다. “그래, 엘리자베스.” 칼로타가 흑단 지팡이의 머리를 꼬옥 움켜쥐면서 말했다. “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렴.”

네리사는 눈을 가늘게 떴고, 칼로타는 예의 차리기는 솟제 포기한 듯 잔인하게 웃었다. 네리사는 칼로타를 조금 더 응시하고는, 당황한 동생에게 진심과 사랑이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 엘리자베스.” 언니의 숨죽인 인사에 엘리자베스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했다.

“안녕.” 엘리자베스는 머뭇거리며 대답하고는 뒤로 돌아 뛰다시피 방에서 나갔다.

“자,” 칼로타가 카드를 나누었고, 네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장 뽑았다. 여섯 장의 카드가 탁자 위에 놓이자, 다시 네리사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어떻게든 끝을 보기로 결심한 네리사는 애써 모른 체했다. 그녀는 가장 오른쪽의 카드를 뒤집었고, 별의 주교를 보고 가까스로 흥분을 억눌렀다. 칼로타는 못마땅한 듯 조그만 소리를 내더니 카드를 뒤집었다. 용 5 였다. 그녀는 강렬한 기대가 어린 눈빛으로 네리사를 올려다보았고, 네리사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네리사가 머뭇거리며 손을 뺀어 왼쪽 카드를 뒤집자, 칼로타가 무례하게 웃어댔다. 사자 2 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었다. 칼로타의 손이 나머지 두 장 위를 떠돌다가 마침내 한 장을 집는 동안, 네리사는 보석함을 힐끗 보았다.

칼로타가 핵 뒤집은 카드는 별의 대천사였고, 노파는 기쁨에 겨워 울부짖다시피 했다. 노파는 킬킬거리며 몸을 들썩였고, 네리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텍에서 가장 높은 카드다. 그녀는 이제 소용없다는 걸 잘 알면서 자기 앞의 마지막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직...

“자,” 칼로타는 심술궂은 환희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얼른 뒤집게. 판을 끝내야지. 안 그런가?” 그녀는 거의 잡아먹을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네리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마녀가 심장을 어떻게 꺼낼까 생각하고 있었다. 입으로 빨아내는 걸까? 저 발톱 같은 손가락으로 가슴을 찢어발기는 걸까? 아니면 거대한 쥐처럼 가슴뼈를 갈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끔찍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칼로타에게 웃어 보였다. “물론 지금 비긴 걸로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걸 걸거나...” 그녀는 보석함을 다시 집어 들고는 빛에 박힌 사파이어를 어루만지고, 단검 손잡이의 보석을 쓰다듬었다.

“안 되지.” 노파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받아쳤다.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자네가 졌네. 이제 얼른 카드를 뒤집고 게임을 끝내세.”

“그러죠.” 네리사는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을 끝내죠.” 그러고는 빠른 동작으로 단검을 검집에서 뽑았다. 칼로타는 비명을 질렀다. 노파가 공격을 피하려고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손잡이 끝에서 기묘한 불꽃이 날름거렸다. 그러나 네리사는 단검을 바꾸어 들더니 자기 가슴에 찔렀다. 붉은 피가 솟구쳐 카드에 튀었고, 칼로타는 화가 나서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며 몸을 움츠렸다. 동맥의 선혈이 점점 더 약하게 탁자에 흩뿌려졌고, 결국 네리사는 눈을 뒤집으며 의자에 쓰러졌다. 이제 피는 약하게 흐르며 비단 옷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다.

칼로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은 채, 숨을 얇게 헐떡이며 갈라진 혀로 비늘이 덮인 입술을 핥았다. 그녀의 눈길이 식어가는 시체에서 탁자 위의 끝나지 않은 게임으로 옮겨갔다.

집 어디선가에서 엘리자베스의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 그녀는 자기가 이 아가씨에게 건 주문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노파는 식씩거리며 손을 뻗어 네리사의 마지막 카드를 뒤집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헛된 일이다. 한 번 정해진 게임의 조건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네리사는 '제가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때까지 말이죠.'라고 말했던 것이다.

칼로타는 간신히 일어서서,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좋은 수였네. 실로 좋은 수였어."

그녀는 피에 젖은 카드를 뒤로하고,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느릿느릿 방에서 나갔다.